ISBN 979-11-5698-317-0
93370
9 791156 983170

Y-KAST 2019-2021

Y-KAST
2019 - 2021

2대 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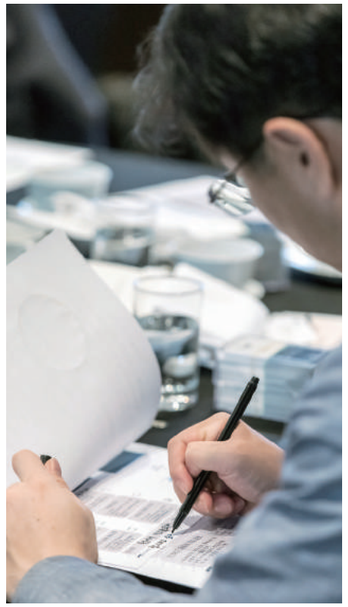
Y-KAST 2대 운영위원회

윤정환(한림대학교)
이성주(아주대학교)
윤태영(서울대학교)
남기태(서울대학교)
손기훈(POSTECH)
김진성(연세대학교)
오채운(녹색기술센터)
정우성(POSTECH)
최태림(서울대학교)
배명진(KAIST)
김수영(고려대학교)
이현주(KAIST)
이정은(서울대학교)
이대희(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미현(가천대학교)
주영석(KAIST)

Y-KAST
2019-2021
2대 운영위원회

CONTENTS

4 발간사
제2대 Y-KAST 윤정한 부장



6 목적
Y-KAST 도약을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정리

10 비전
대한민국 미래 변화의 주역이 될 창의적 젊은 과학자 양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구미동)
전화 031)726-7900
팩스 031)726-7908

발행인 한민구 원장
편집인 윤정한 차세대 부장
총괄기획 남기태 공학부 간사
구성·편집 홍지윤 국제협력실 주임
제작·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Y-KAST

발간사	04
목적	06
운영위원회의 구성	08

14 활동 내용
2020 Y-KAST Members'Day

19 활동 내용
스웨덴 영아카데미와의 협력

18 활동내용
해외 한림원과의 네트워킹

32 활동 내용
한림원탁토론회

2019-2021

비전	10
활동 내용	12
활동을 돌아보며	44

01 발간사

2021년 2월 - 제2대 Y-KAST
부장 **윤정한** 드림

대한민국 미래 변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창의적 젊은 과학자 양성에 앞장서온 Y-KAST 제2대 운영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국내 과학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등의 전개는 물론, 사회적 가치에 책임을 다하며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같은 결실을 포함해 현재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과 남겨진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활동으로는 스웨덴 영아카데미(Young Academy of Sweden)와 2019 Y-KAST-YAS Bilateral Symposium을 합동 개최한 바 있으며, 미국 한림원과는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교류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영아카데미 참여와 일본·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 영아카데미와의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내 Y-KAST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Y-KAST Members' Day는 3회에 걸쳐 열었으며,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회 관심 분야에 관한 한림원탁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해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테마로 7회에 걸쳐 일반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유튜브 채널은 커다란 관심과 성원을 모았습니다. 한편, 국회·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젊은 과학자 양성과 국가과학정책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과학기자협회 포럼을 통해 대언론 이해 제고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이 있기까지 Y-KAST 활동에 한 마음으로 함께한 전 차세대회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COVID-19 영향으로 의미 있는 모임 대다수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2대 운영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이전부터 축적해온 성과를 돌아보고, 해당 과정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다각도로 기록해 사업 연속성과 제3대 운영위원회 활동, 그리고 Y-KAST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Y-KAST 전기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기적 기록이 지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며, 활동보고서 작성을 전통으로 확립해 차기 활동에 도움을 주길 희망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Y-KAST 운영위원 열 다섯 분의 노고와 더불어, 기획부터 세세한 내용을 주도해 주신 남기태 간사님의 열정과 노력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Y-KAST 활동과 보고서의 발간이 가능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민구 원장님과 정진호 총괄부원장님을 비롯한 한림원 9대 운영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Y-KAST의 활동은 한림원 사무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다양한 관련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이재형 실장님과 김륜혜 선임님, 홍지윤 주임님, Y-KAST의 Members' Day 행사 준비와 차세대회원 홍보를 해주신 정윤하 팀장님, 회원관리를 맡아주신 이선화 선임님과 최정아 선임님, 한림원탁토론회와 차세대리포트를 운영해주신 배승철 팀장님, 조은영 주임님, 이동원 주임님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발자취가 차기 Y-KAST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뒷받침할 수 있길 소망하며 차세대한림원의 무궁한 발전과 앞으로 그 훗날을 이끌어 주실 차세대회원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02 목적

Y-KAST 도약을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현재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과 남겨진 과제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Y-KAST 1대 운영위원회가 Y-KAST의 첫발을 내디디며 앞으로 해야할 활동을 정립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면, Y-KAST 2대 운영위원회는 비전과 목적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활동을 시도해 우리 고유의 특성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로써 경험하고 느낀 바를 다각도로 자유롭게 기록해 3대 운영위원회와 Y-KAST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였다. 이 또한 2대 운영위원회의 새로운 시도로, 차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전 기수가 활동보고서를 남기는 사례가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하기를 바라며 Y-KAST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남길 희망한다.

03 운영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제 8 조 (차세대부장)

① 차세대부장은 정회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차세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결원된 차세대부장의 잔여임기로 하며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차세대학부간사)

① 차세대학부간사는 차세대회원 중에서 각 학부별 1인을 차세대부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② 차세대학부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새로 임명하고, 임기는 결원된 간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0 조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회)

① 차세대한림원의 주요원무를 심의하기 위해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회를 두며, 차세대부장이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 04. 12) ②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회는 차세대부장, 차세대학부간사 및 학부별 운영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04. 12) ③ 운영위원은 차세대부장의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19. 04. 12) ④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새로 임명하고, 임기는 결원된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차세대한림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윤정한
차세대부장

한림대학교
한림원 농수산학부 종신회원

각 학부당 간사 한 명과 운영위원 한 명에서 학부당 간사 한 명과 운영위원 두 명으로 증원하여 운영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Y-KAST 부장이 간사를 선정하면, 부장과 간사의 토론을 거쳐 운영위원을 선정하였다. Y-KAST 2대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정책학부	**이성주** 간사 아주대학교	**오채운** 운영위원 녹색기술센터	**정우성** 운영위원 POSTECH
이학부	**윤태영** 간사 서울대학교	**배명진** 운영위원 KAIST	**최태림** 간사 서울대학교
공학부	**남기태** 간사 서울대학교	**김수영**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이현주** 운영위원 KAIST
농수산학부	**손기훈** 간사 POSTECH	**이정은**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이대희** 운영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의약학부	**김진성** 간사 연세대학교	**김미현** 운영위원 가천대학교	**주영석** 운영위원 KAIST

04 비전

2기 운영위원회에서는 Y-KAST의 비전과 미션 명문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문과 영문으로 우측과 같이 문구를 만들었다.

비 전

"대한민국 미래 변화의 주역이 될 창의적 젊은 과학자 양성"

미 션

① Y-KAST는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② Y-KAST는 젊은 과학자들의 난제해결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융합연구 증진과 세대간 네트워크 및 국제네트워크형성 분위기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 Y-KAST는 과학적인 근거 기반 정책제안 과정 개선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Y-KAST의 역할 및 미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Vision

Empower young scientists to lead innovative changes in the future of Korea.

Mission

① Y-KAST is committed to advancing the research environment for young scientists.

② Y-KAST fosters collaborative research environments and promotes global networking for young scientists:

1) Providing a foundation for young scientists to conduct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find solutions to challenging problems

2) Encouraging young scientists to share their needs and ideas wi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nd intergenerational networks.

③ Y-KAST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links among science, policy, and society.

© by Markus Scholz

05 활동 내용

1)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A. Y-KAST 멤버스데이 개최

2019년 10월 18일, 2020년 1월 30일과 12월 10일에 총 세 차례의 멤버스데이를 개최하였다. 1년에 한 번, Y-KAST 모든 멤버들이 참석해 교류하고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은 차세대회원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Y-KAST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1. 좌측부터 정가영 회원, 이정은 운영위원
2. 좌측부터 김진성 간사, 김수영 운영위원, 윤태영 간사
3. 이상욱 회원

2020 **Y-KAST** Members'Day

1

2

3

4

5

6

7

8

1. 좌측부터 윤정한 차세대부장, 김상욱 동문회원, 이명철 이사장
2. 남기태 간사
3. 김진성 간사
4.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5. 최태림 운영위원
6. 이성주 간사
7. 좌측부터 이상훈 회원, 양웅모 회원
8. 윤태영 간사

2019 Y-KAST Members' Day 프로그램

KAST 한국과학기술회관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9 Y-KAST Members' Day 프로그램(안)

('19.10.07, 국제컨벤션)

❑ 행사개요

- ○ 행사명: 2019 Y-KAST Members' Day
- ○ 주 제: Connecting Science and Society
- ○ 일자/장소: 2019년 10월 18일(금), 14:00 / 더플라자 루비홀
-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기획의도
리더십 강연		**사회: 이성주 정책학부 간사**
14:00-14:10	격려말씀: 한민구 원장	
14:10-15:10	초청강연: 석정훈 김은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리더십 강연
패널토론		**사회: 김진성 의약학부 간사**
15:10-16:00	**주제: 젊은 과학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젊은 과학자, 한국에서 지치지 않기** - 좌장: 남기태(공학부 차세대 간사, 서울대) - 패널: 박용호(차세대 창립부장, 서울대) 김형범(의약학부 차세대 창립간사, 연세대) 윤태영(이학부 차세대 간사, 서울대)	• Y-KAST의 초대 설립 비전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내고, 미래를 위한 국가 대표 과학기술인으로의 역량을 지원하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립되었음 • 과학기술적 우수성과 창의성을 갖춘 젊은 연구자들을 선발, 세계 명아카데미 과학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고, 보다 국제 경쟁력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각자의 전문영역에서의 수월성을 가지면서,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님 • 창립부장으로, 간사로, 또한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Y-KAST 활동, 혹은 젊은 차세대 과학자들에 상황에 대해 패널, 청중과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KAST 한국과학기술회관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Y-KAST 비전 및 사업 안내

16:00-17:00	**Y-KAST 소개 홍보 동영상** - 진행: 이성주(정책학부 차세대 간사, 아주대) 김진성(의약학부 차세대 간사, 연세대)	
	인사말 - 환영사: 윤정한 부장	
	운영위원 소개 - 진행: 이성주(정책학부 차세대 간사, 아주대) 김진성(의약학부 차세대 간사, 연세대)	
	2020년 사업소개 - 발표: 김수영(공학부 차세대 운영위원, 고려대) * GYA 소개영상 포함(약 2분 30초)	
Y-KAST 미래를 위한 도약(미래 로드맵 설정)		**사회: 이성주(정책학부 차세대 간사, 아주대) 김진성(의약학부 차세대 간사, 연세대)**
17:00-18:00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싶은 것** - 진행: 김미현(의약학부 차세대 운영위원, 가천대)	Y-KAST 미래로드맵 구축 - Y-KAST 중장기비전 공유 - 단계별 활동계획 수립 - 단기 활동들의 우선순위 설정 ※ 포스트잇으로 참석자 의견 접수, 세부 그룹핑 후 진행
네트워킹 세션 및 만찬		
18:00-20:30	**PPT 소개자료 발표**	※ 첨부된 양식 활용하여 16일까지 제출 요망
	명함 교환	※ 한림원에서 일괄 제작 후 행사장에서 배포 예정
	2020년 사업소개 자료 검토	
	네트워킹 이벤트	
클로징		**진행: 최태림 이학부 운영위원**

2020 제1회 Y-KAST Members' Day 프로그램

2021년도 차세대회원 회원패수여식
020년 제2회 Y-KAST Members' Day 온라인 개최계획(안)

(2020.11.30. 홍보팀)

행사 개요

- ○ 행사명: 2020년도 제2회 Y-KAST Members' Day
- ○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5시
- ○ 장 소: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그랜드볼룸(B1) + Zoom + 유튜브
- ○ 참 석: 2021년 차세대회원 및 Y-KAST 운영위원 등 50인 + a
  - [현 장] 원장, 차세대부장, 사회자(2인) 등 4명
  - [Zoom A] 학부별 간사 + 신임 차세대회원 등 35인(순차 입장)
  - [Zoom B] 기존 차세대회원 등 전체 입장
  - ※ 유튜브에는 현장과 Zoom A만 송출
- ○ 프로그램(안)
  - 사회: 주영석·이성주 회원

시 간		내 용	비 고
5:00 ~ 15:30	30분	교류의 시간(Zoom 입장 시작)	
5:30 ~ 15:40	10분	개회식 - 인사말씀: 한민구 원장 - 2020년 Y-KAST 활동 및 2021 비전과 계획: 윤정한 차세대부장	
5:40 ~ 16:50	70분	- 회원심사경과보고 - 2021년 Y-KAST 회원 연구분야 소개 [정책→이학→공학→농수산→의약학 순]	
6:50 ~ 17:00	10분	감사패 수여 및 폐회	

이성주 간사, 주영석 운영위원

B. 해외 한림원과의 네트워킹

스웨덴영아카데미, 미국한림원과의 교류를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일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아카데미 등과의 네트워킹 추진 방안을 검토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과학기술자간 국제 협력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I 스웨덴 영아카데미와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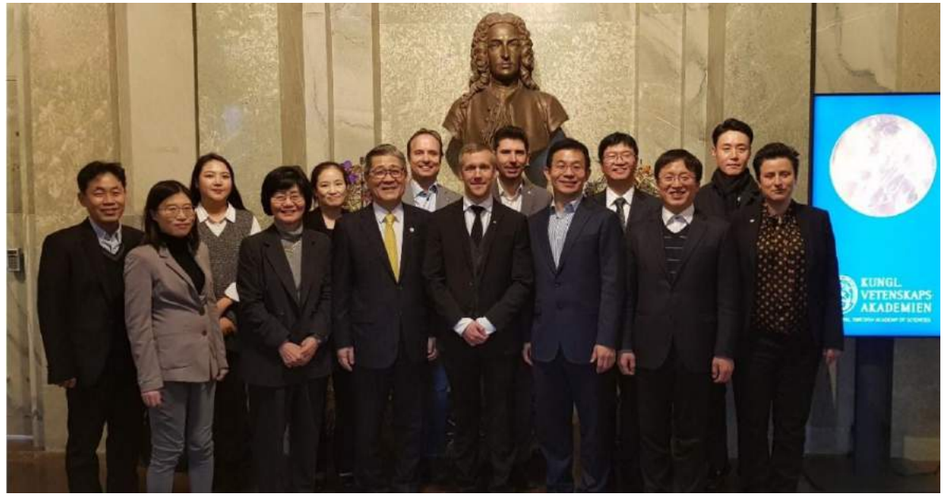
스웨덴 영아카데미(Young Academy of Sweden; YAS)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9 Y-KAST-YAS Bilateral Symposium(2019/12/11)은 2대에서 추진한 해외 한림원과의 의미 있는 네트워킹 중 하나로, 두 한림원 간 지속적 교류를 위한 좋은 시작으로 평가 받았다. 윤정한 부장님, 6명의 Y-KAST 멤버, 2명의 사무처 직원이 스웨덴을 방문하였으며, 1) Leadership in academia and in society, 2) Beyond the academy: Engaging our voices in policy making, 3) Achieving SDGs in my fields를 주제로 참가자의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양국 한림원의 관심사를 공유하였다. 심포지엄에서의 유쾌한 분위기는 저녁식사까지 이어졌다. 이후 2020년 한국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로 아쉽게 성사하진 못하였다. 스웨덴 한림원은 중요한 전략적 협력 대상인 만큼, 정기적인 심포지엄 개최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 네트워킹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YAS는 폴리머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Magnus Jonsson(Linköping University)이 Chair를 맡았고, Anna Wetterbom는 기관 CEO로서 YA를 총괄 기획, 운영 · 관리하였다. 멤버 수는 약 35인으로 많지 않았지만,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여러 Foundation에 펀딩을 제안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2021년 2월 기준, Sanna Koskiniemi(Uppsala University)가 새로운 YAS Chair로 취임했다.

스웨덴영아카데미(YAS) 주요 연락처

Chief Executive Officer
Dr. Anna Wetterbom
anna.wetterbom@sverigesungaakademi.se

Y-KAST 측 참석자	YAS 측 참석자
윤정한 차세대부장	Magnus Jonsson, Chair (Linköping University)
이성주 정책학부 간사 (아주대학교)	Anna T. Danielsson (Uppsala University)
이상욱 이학부 차세대회원 (이화여자대학교)	Stefan Engblom (Uppsala University)
남기태 공학부 간사 (서울대학교)	Ewa Machotka (Stockholm University)
김수영 공학부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Johan Rockberg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장호원 공학부 차세대회원 (서울대학교)	Chritian Ohm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김미현 의약학부 운영위원 (가천대학교)	Magnus Jonsson, Chair (Linköping University)



(좌측부터 이상욱 회원, 김미현 운영위원, 김륜혜 행정원, 윤정한 차세대부장, 이성주 간사,
이정규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 남기태 간사, 김수영 운영위원, 장호원 회원, 이재형 국제협력실장)

PROGRAM

2019 Y-KAST - YAS Bilateral Symposium

11 December 2019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Stockholm, Sweden

Opening Ceremony	
13:00 - 13:20	**Opening Remarks** Jung Han Yoon (Chair, Y-KAST) **Welcoming Remarks** Magnus Jonsson (Chair, YAS) **Congratulatory Remarks** Jeong-kyu Lee (Ambassador,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Sweden) **Group Photo**
Introduction of the respective academies	
13:20 - 13:50	Presentation about each academy
13:50 - 14:00	Break
Theme 1: Leadership in Academia and in Society	
14:00 - 14:50	Presentation and Discussion (10min for 1 speaker from each academy and 30min for discussion)
Theme 2: Beyond the Academy: Engaging our voices in policy making	
14:50 - 15:40	Presentation and Discussion (10min for 1 speaker from each academy and 30min for discussion)
15:40 - 16:00	Break
Theme 3: Achieving SDGs in my fields	
16:00 - 17:00	Presentation and Discussion (5min for 1 speaker from each academy)
17:00 - 17:10	Clo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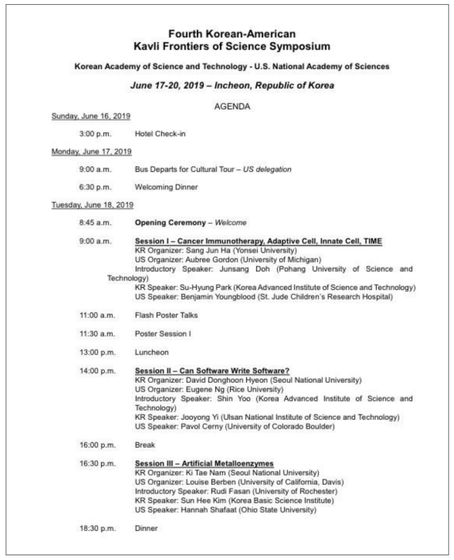
2017년, 서울에서 Nobel Prize Dialogue 행사의 일부로 Young Scientists Talk를 개최했는데, 그때 Gunnar öquist 교수님을 Plenary Speaker로 모셨다. 이 분은 스웨덴 한림원 회원으로, 스웨덴 영아카데미를 적극 지지하고 계시며, Y-KAST에도 매우 우호적이었다. 앞으로 Y-KAST 및 YAS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Marie Wilberg 스웨덴 영아카데미 멤버를 초청해 앞으로의 관계를 모색했는데 추후 중요한 네트워크 연결고리로 작용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II 미국한림원과의 협력
(제4회 KFoS 공동심포지엄 개최)

'Kavli Frontiers of Science'는 젊은 연구자에게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 교류, 연구 경력과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는 심포지엄으로 15년 동안 지속해왔다. 이 행사는 한국-미국 한림원의 공동 주최로 지난 2013 · 2015 · 2017 · 2019년에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다.

미국한림원(NAS)
Kavli Foundation 주요 연락처

Associate Program Officer
Danielle Crosser Dcrosser@nas.edu



Fourth Korean-American
Kavli Frontiers of Science Symposium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June 17-20, 2019 – Incheon, Republic of Korea

AGENDA

Sunday, June 16, 2019

3:00 p.m. Hotel Check-in

Monday, June 17, 2019

9:00 a.m. Bus Departs for Cultural Tour – *US delegation*

6:30 p.m. Welcoming Dinner

Tuesday, June 18, 2019

8:45 a.m. **Opening Ceremony** – *Welcome*

9:00 a.m. **Session I – Cancer Immunotherapy, Adaptive Cell, Innate Cell, TIME**
KR Organizer: Sang Jun Ha (Yonsei University)
US Organizer: Aubree Gordon (University of Michigan)
Introductory Speaker: Junsang Doh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R Speaker: Su-Hyung Park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S Speaker: Benjamin Youngblood (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

11:00 a.m. Flash Poster Talks

11:30 a.m. Poster Session I

13:00 p.m. Luncheon

14:00 p.m. **Session II – Can Software Write Software?**
KR Organizer: David Donghoon H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Organizer: Eugene Ng (Rice University)
Introductory Speaker: Shin Yoo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R Speaker: Jooyong Yi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S Speaker: Pavol Cerny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16:00 p.m. Break

16:30 p.m. **Session III – Artificial Metalloenzymes**
KR Organizer: Ki Tae Nam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Organizer: Louise Berben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Introductory Speaker: Rudi Fasan (University of Rochester)
KR Speaker: Sun Hee Kim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US Speaker: Hannah Shafaat (Ohio State University)

18:30 p.m. Dinner

Wednesday, June 19, 2019

9:00 a.m. **Session IV – A New Frontier in Cosmological Simulations**
KR Organizer: Chunglee Kim (Ewha Womans University)
US Organizer: Sabrina Stierwalt (California Institute of University of Technology)
Introductory Speaker: Jihye Shin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KR Speaker: Ji-ho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Speaker: Coral Wheeler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1:00 a.m. Flash Poster Talks

11:30 a.m. Poster Session II

13:00 p.m. Luncheon

14:00 p.m. **Session V – Frontiers of Air Pollution**
KR Organizer: Sung Hyun Nam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Organizer: Aradhna Tripathi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Introductory Speaker: Saewung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KR Speaker: Hwajin Kim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S Speaker: Jooil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6:00 p.m. Break

16:30 p.m. **Session VI – Human Evolution**
KR Organizer: Young Seok Ju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S Organizer: Robert Eagl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Introductory Speaker: Sang-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KR Speaker: Jong Hwa Bhak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S Speaker: John Lindo (Emory University)

18:30 p.m. Dinner

Thursday, June 20, 2019

9:00 a.m. **Session VII – Neurological Basis of Mood Disorders**
KR Organizer: Jaewon Ko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US Organizer: Gavin Rumbaugh (Scripps Research)
Introductory Speaker: Ja Wook Koo (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KR Speaker: Kihoon Ha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US Speaker: Mary Kay Lobo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Medicine)

11:00 a.m. Break

11:30 a.m. **Session VIII – Public Perception of Science**
US Organizer: Sabrina Stierwalt (California Institute of University of Technology)
Introductory Speaker: Sara Yeo (University of Utah)
KR Speaker: Jibum Chu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S Speaker: Michael Cacciatore (University of Georgia)

13:30 p.m. Closing Ceremony & Luncheon

18:00 p.m. Dinner – *US delegation*

Friday, June 21, 2019

12:00 p.m. Hotel Check-out

제4회 한 · 미국 한림원 KFoS 공동 심포지엄 역시 미국 한림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과의 소통을 위해 2019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 동안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했다. 강연 세션, Flash Poster Talks, 그리고 포스터 세션이 이어졌으며, 양국의 젊은 과학자가 모여 총 8개 주제 분야에 대해 연구 발표와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여기엔 약 10명의 차세대 회원이 참여하였고, 전체 참석자 수는 백여 명에 육박하였다. 심포지엄은 최근 과학적 진보를 반영하는 이슈부터, 2018년 노벨상 수상 주제(진화 원리 관련 주제 - 컴퓨터 공학: 'Can Software Write Software?' / 화학: 'artificial metalloenzyme' / 진화 유전학 'evolutionary genomics'), 미세먼지 같은 사회 현상 등 반영하여 다뤘다. 발표 영상은 미국 한림원의 'Kavli Frontiers of Science' 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아쉽게도 다음에 열리는 양국 공동 심포지엄은 중국을 포함한 3국으로 열리는 안을 논의했고, 21년 심포지엄은 '중국-미국 양국 심포지엄'으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미국-독일-일본'으로 2019년 심포지엄을 열었기 때문에, 한국 한림원 또한 3국 심포지엄이 추후 굳어진다면, 전략적으로 제3국을 선택하여 'Kavli Frontiers of Science'가 심포지엄을 열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 미국 하와이 뉴오타니 호텔에서 조직위원회 미팅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욱준 총괄부원장, 하상준 교수, 남성현 교수, 현동훈 교수, 고재원 교수, 주영석 교수 등 총 6인이 참석하였다. 본 모임에선 KFoS symposium에서 다룰 주제와 organizer 선정을 토의하였다. 사전 모임 이전에 각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 주제를 미리 상호 공유하였으며, title, abstract, 예비 speaker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사전모임에서는 최종 KFoS에서 다룰 8개 주제 선정을 위해 우주과학부터 인간의 진화까지 다양한 테마에 대한 소개와 토론이 있었으며, 여러 분야의 과학자가

추천한 과제를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최종 주제 선정을 위한 1차 투표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영역별 분배까지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했으며 주제마다 한국과 미국의 organizer를 선정하였다. 여담이지만, 한국에서 방문한 준비위원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구성에 대해 다소 의아해 하였다. 앞으로 준비위원을 구성할 때 생각해 볼 만한 측면이 있다.

이후 각 주제마다 두 명의 organizer가 speaker를 선정하고 모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Speaker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재직 중인 과학자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Ⅲ 일본 영아카데미와의 협력

일본 영아카데미(Young Academy of Japan; YAJ)는 일본학술회의(Science Council of Japan) 산하기관으로, 2015년 설립했다. 이곳은 지난 2017년에 "Institutional and Scientific Challenges for Young Scientists in Asia"를 주제로 분당 한림원 본원에서 양국 영아카데미간 공동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뒤이어 2020년 2회 Y-KAST-YAJ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자 YAJ Chair인 Akihiro Kishimura 교수(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Kyushu University)와 논의를 주고받았으나, 한일간 대외적 상황 변화로 인해 결국 불발했다. Kishimura 교수는 Global Young Academy의 멤버로, GYA와 YAJ는 굉장히 친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두 기관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제2회 Y-KAST-YAJ 공동심포지엄 개최는 성사하지 못하였으나, 추진 당시 Kishimura 교수에게서 아래와 같이 2021년 가을 개최 예정인 Tsukuba Conference의 초대를 받았다.

Tsukuba Conference scheduled in 2021 autumn.

https://tsukuba-conference.com/

"This conference is a forum for future shapers—talented young leaders from industry, government and academia worldwide. We are planning to have some sessions together with young researchers in foreign countries, like GYA. In 2019, YAJ co-organized several sessions together with GYA."

일본영아카데미(YAJ) 주요 연락처

Chair
Prof. Akihiro Kishimura
kishimura.akihiro.776@m.kyushu-u.ac.jp

아울러, YAJ는 1기 차세대 부장이신 박용호 교수님께서 2018년 YAJ 저널 "Trends in the Sciences"에 기고문을 올려주신 점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Challenges and Visions for Young Scientists

Yong Ho Park

"The world needs you. Badly," begins celebrated biologist E.O. Wilson in his *Letter to a Young Scientist*. He goes on to state that as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rapidly expand and become increasingly complex, more young and creative minds are needed. "So let me begin by urging you, particularly you on the youngster's side, on this path you've chosen, to go as far as you can," he says.

Young scientists have the potential to make immense contributions to society. For this reason, young scientists—whether they be nanotechnologists, particle physicists, or astronomers—who can meet challenges and help others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in our world should be nurtured, supported, and praised. We must recognize that the research conducted by young scientists not only enables the developments of future scientists, but also affects producing scientifically-literate future citizens. It is only through innovative and needs-based research that the linkage between science, policy and society can be made stronger, thus creating meaningful outcomes that benefit all. A world community of scientifically literate and educated young people creates a space for forward-thinking and advanced young scientific minds, and it ultimately leads to the involvement of a younger generation of scientists in the dialogue between government authorities, parliamen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t is without a doubt, therefore, that young researchers' experience and competent input act as valuable pillars for the future success of mankind.

Despite the increasing awareness of the need to nurture and support young scientists, there still exists challenges that may discourage individuals with high growth potential. Though such challenges, both big and small, may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and field of study, many are nevertheless common to all areas of scientific study. Some of these common challenges include the difficulty of receiving research funding and proper research infrastructure, maintaining research independence, and finding a work balance between conducting research, teaching and fulfilling administrative duties. Young scientists, thus, have to continuously fight for grant money while at the same time struggling with excessive administrative tasks, making them spend more time doing paperwork than actual scientific research. According to the "The Global State of Young Scientists," a study published by the Global Young Academy of Berlin in 2014, scientists in Africa and Asia only have a few more hours for their research than for teaching – which, according to the survey participants, amounts to a disadvantage in the competitive global job market because teaching is not recognized in terms of one's career. While expected to produce creative ideas, these young scientists also have to deal with declining budgets that force them to exchange their original research ideas, independence, and ultimately, their passion, for insecurity and uncertain advancement.

Also, these young scientists restrain themselves from freely exploring different fields of study and are often

afraid of crossing academic boundaries. Science has developed tremendously and many new discoveries have been made over the past centuries, which also poses a new barrier to young scientists; it is now very difficult for them to find unique and undiscovered areas of interest, and is impossible to conduct research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it being recognized. This often leads to repetitive topics and outcomes that could be regarded as scientific clichés. The solution for this problem is to change the mindsets of young scientists. Young scientists must fight against the existing academic boundaries. They must quickly adapt to an academia that welcomes inter-disciplinary and converged research. Only through an environment of joint research can undiscovered yet meaningful research outcomes be made, which will ultimately have a creative, synergetic effect that encourages young scientists to push forward.

For this reason, Young Academ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ovide a better research environment for young scientists around the world. Global Young Academy, which represents the voices of young scientists around the globe, defines a Young Academy as "an academic organization typically formed by young scientists and scholars at the beginning of their independent careers who have been selected for the excellence of their research impact and commitment to service." There are about 30 Young Academies, including the most well-known and the first to be established, Die Junge Academie in Germany. As the first academy of young academics worldwide, Die Junge Academie provides interdisciplinary and socially relevant spaces for outstanding young academics from German speaking countries. Among others, there is the Young Academy of Sweden, as well as the Young Academy of Japan, which promote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ir home countries. The most recent young academy is the 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Y-KAST), launched in February 2017.

Young Academies strive to foster creative and dynamic research environments. With a belief that transformative research is only possible through incremental research, the priority of the global academies is to provide the apt environment where each individual researcher can exhibit his or her potential by presenting and sharing ideas which can lead to innovation. These academies aim to provide the opportunity for the world's first-class scientists to interact and network with groups and members of overseas Young Academies. Furthermore, they promote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and representation. The members of these Young Academies, all under the age of 40, have shown their commitment to public service and have actively played a transformational role by bringing their scientific knowledge into society for the public good.

Y-KAST of Korea is a good example of a Young Academy that shares the vision of all Young Academies worldwide. It was created with the goal of building a well-organized system that taps into the potential of Korea's young researcher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le also supporting the country's science and technology leaders of the future. Y-KAST aims to encourage young scientists to explore their own

PROFILE

Yong Ho Park

- Chair, 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 Commissioner, Korea BioMAX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Discipline Veterinary Microbiology

ideas within the broader frame of ongoing research endeavors by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young people and new ideas. By actively utilizing the resources and expertise of the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AST), members of the Y-KAST are able to network and present their ideas in 5 areas (Policy Studies Division, Natural Sciences Division, Engineering Division, Agricultural & Fishery Sciences Division, and Medical Sciences Division). Y-KAST believes that support from well-respected members of the senior national academy is an important factor in driving the Young Academies, and, therefore, it has hosted numerous seminars and joint conferences where participants can openly share ideas and draw research collaborations. This has played a key role in strengthening the links between science and society by informing decision makers for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s.

Young Academies not only provide the space for creating ideas and networking, they also fill young researchers' need for stability and security. Young Academies worldwide provide the following services and activities: mobilizing potential young scientists through public seminar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ternships and mentorships; providing advisory services to young researchers to build their research career potential; facilitating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research career development by using connections with other international and national institutions; developing and maintaining a national database of scientific events, funding opportunities and resources; issuing publications on scientific issues of national importance in journals and magazines owned and run by the national academy; and connecting with science education programs in other countries in order to share experiences and establish exchange programs.

However, the role of Young Academies must go beyond just providing a platform for young researchers to present their achievements and network with one another. In order to provide insights to these young scientists and strengthen the bonds between science and society, Young Academies must perform the following three roles: 1) Advance Interdisciplinary Research, 2) Fo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3) Promote a Science-Society Dialogue.

First, Young Academies need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mong all scientists by encouraging young scientists to spread their ideas in a wider range of scientific fields and break down the academic boundaries. To achieve this, Young Academies need to hold academic seminars and conferences on research topics that could be regarded as "unpopular" and less explored, which could inspire young scientists to broaden their fields of interest. This can then lead them to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breaking down the academic boundaries which have been hampering the expression of young scientists' creativity.

Second, Young Academies need to fo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Young Academies worldwide need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among themselves,

while also reaching out to other senior national academies and related prestigious institutions abroad. With the opportunity to collaborate with worldwide networks, young scientists are able to gain different perspectives and make good use of international networks to collect research information in the future.

Third, Young Academies should encourage a science-society dialogue. Scientists, both senior and young, need to inform the public about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o strengthen the bonds between science and society through diverse methods of communication. By raising the voices of young scientists, on topics ranging from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to human rights and science diplomacy, innovations in both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communities can take place in our society. Y-KAST of Korea, for example, has held its Young Scientists Talk during the Korea Science Week, where scientists and the general public are invited to discuss the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of young scientists. This event has attracted the participation of non-scientists, including students and policy makers, and it has been able to redirect their interests towards some of the most innovative scientific ideas of our times.

Young Academies believe in empowerment. Empowering young researchers to gain broader perspectives and lead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nd inter-generational dialogue can bring such powerful outcomes, in both the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communities. It is vital, therefore, for Young Academies to continue to mobilize young research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integrate scientific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These activities will strong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of young scientists.

References

1 "What Is a Young Academy?" *Global Young Academy*, globalyoungacademy.net/gya-concept-of-national-young-academies/.
2 "Blueprint for Establishing a National Young Academy (NYA)", produced by the Global Young Academy (updated March 2017).

Ⅳ 이스라엘 영아카데미와의 협력

이스라엘 영아카데미(Israel Young Academy; IYA)와의 협력은 Avi Zadok 교수(Bar-Ilan University)을 통해 진행했으나, 최근 Chair가 Tamar Geiger 교수(Tel Aviv University)로 바뀌었다. 양국 공동 심포지엄은 2021년 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후반기로 잠정 연기하였다. 추진 당시, 이스라엘 측은 특정 학문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폭 넓은 주제를 다루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에 발맞춰 Y-KAST는 양국 참석자 각자의 연구 분야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토론하여 상호간의 공통 관심사를 발굴하고 융합 연구를 추진하는 형태의 심포지엄을 제안했고 IYA는 이에 동의하였다.

참고로 Y-KAST와 YIA의 첫 교류는 Y-KAST 1대 운영위원회 박용호 부장님과 남기태 간사가 IYA와 GYA 가 주관하는 Meeting of the Asian Young Academies(2018년 2월)에 초청 받아 IYA Chair인 Prof. Ron Milo를 만나면서 이뤄졌다.

이스라엘 영아카데미(IYA) 주요 연락처

Chair
Prof. Tamar Geiger geiger@tauex.tau.ac.il

Ⅴ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아카데미와의 협력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아카데미(South African Young Academy of Science; SAYAS)와의 협력은 2020년 4월 8일, 양국 젊은 과학자 교류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는 윤정한 부장 명의 서한을 계기로 첫발을 내디뎠다. 남아공 영아카데미 측은 COVID-19로 인해 개최 시기를 단언하기 어려우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제, 형식, 예산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운영위원진간 화상 회의를 제안해왔다. 이후, COVID-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바람에 본격적인 추진은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며, 추후 재개하여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아카데미(SAYAS) 주요 연락처

Young Scientist Liaison Officer
Edith Shikumo Edith@assaf.org.za

C. 세계영아카데미 (Global Young Academy)와의 협력

2019년 독일 할레에서 열린 “GYA International Conference“와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한 “4th Worldwide Meeting of Young Academies (WWMYA)” 국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특히 다낭 국제 학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Young Academy가 참석하여 각자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세션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Y-KAST의 역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참가국이 제3세계 위주였는데, 선진국 Young Academy과의 교류와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하나의 성공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독일 할레 GYA International Conference” (좌측부터 김미현 운영위원, 이성주 간사)

“베트남 다낭 4th WWMYA”
(좌측부터 윤정한 차세대부장, 최태림 운영위원, 김수영 운영위원)

GYA는 전세계 젊은 과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0년 독일에서 설립한 단체로, 현재까지 한 명의 한국인 Alumni가 존재한다. Y-KAST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GYA와의 네트워킹을 추진했다. GYA Annual meeting에서는 GYA 멤버뿐 아니라 각국 영아카데미의 대표가 참가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갖는다. 따라서 Y-KAST에선 앞서 밝힌 “GYA International Conference”와 2020년 온라인으로 진행한 “Online Young Academies Meeting”에 각각 두 명의 운영위원이 참가하였으며, 영아카데미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별 현안, 과학기술 발전 관련 공동의 관심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실제 GYA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일부는 2020년 12월 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179회 한림원탁토론회(“대학 교수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2020년에는 Y-KAST 멤버를 대상으로 GYA 가입을 독려하였으며, 여기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GYA 멤버가 아니어도 참가 가능한 만큼 추후 Y-KAST에서 보다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GYA는 일본과 독일을 중심축으로 제3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이지만, 향후 과학기술 외교에 있어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영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 유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세계영아카데미(GYA) 주요 연락처

Senior Project Officer
Anna-Maria Grammatté
Anna-Maria.Gramatte@globalyoungacademy.net

2) 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참여

A. 유튜브 채널

2019년 초, Y-KAST의 사회 참여 가운데 하나로 차세대회원이 연구하는 분야를 학생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료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Y-KAST는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유튜브를 선택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튜브, 줌 등 언택트 형식의 온라인 소통이 일반화했으나, 우리 제안이 이루어진 2019년 초엔 온라인 컨텐츠 제작이 그다지 익숙한 형태가 아니었다. 다행히 Y-KAST 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유튜브 과학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는 '과학쿠키'(2021년 현재 32만 구독 채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Y-KAST 회원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은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사회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일반인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학 콘텐츠를 제작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자평한다. 점차 다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추진하거나, Y-KAST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2대 운영위원회 기간 동안 선보인 영상은 조회 수를 늘리고자 과학쿠키 기존 채널을 활용해 공개했으며, 현재 10만 뷰 이상을 기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Y-KAST 독립 채널을 구축하고 제작된 컨텐츠를 독립적으로 소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

김진성 (연세대)

주 제 :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들여다 보는 방법?
그 기술로 제 뇌를 직접 들여다 봤습니다.

게시일 : 2019.11.2.

주영석 (KAIST)

주 제 : 우리 삶을 위협하는 '암'이란 대체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걸까?

게시일 : 2020.1.19.

손기훈 (POSTECH)

주 제 : 식물도 병에 걸린다고?
그럼 식물도 면역체계가 있을까?

게시일 : 2020.5.9.

강용묵 (고려대)

주 제 : 공기로 작동하는 배터리가 있다!?
그런데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효율이라고!?

게시일 : 2020.7.11.

김상우 (연세대)

주 제 : DNA 분석을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을까?

게시일 : 2020.12.25.

이대희 (KRIBB)

주 제 : 이제 과학은 미생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포를 '공장'처럼 활용하는 기술,
합성생물학이란 무엇일까?

게시일 : 2020.9.5.

김재경 (KAIST)

주 제 : 놀랍게도 '이것'덕분에 생명과학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성생물학이란 무엇일까?

게시일 : 2020.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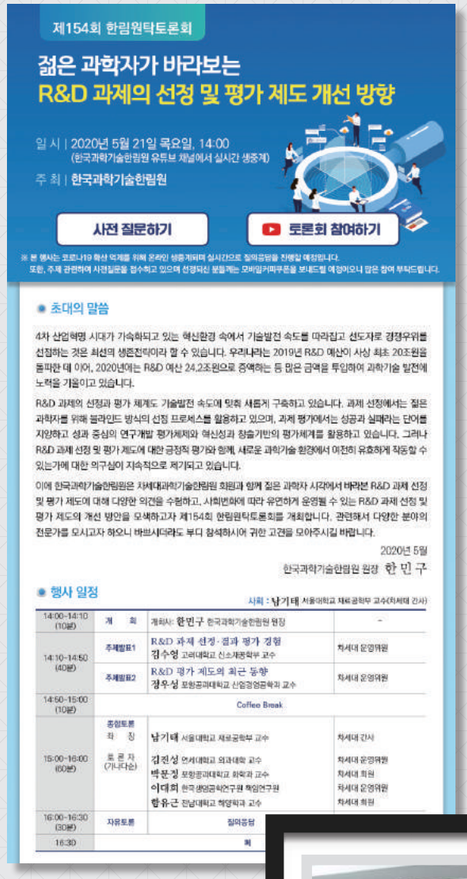
B. 한림원탁토론회

한림원탁토론회는 1996년부터 개최해온 한림원 대표 정책토론회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한 석학과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활성화하며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엔 한림원 회원 위주로 진행하던 본 사업을 2020년부터 Y-KAST 멤버끼리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개최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튜브를 이용해 온라인 생방송으로써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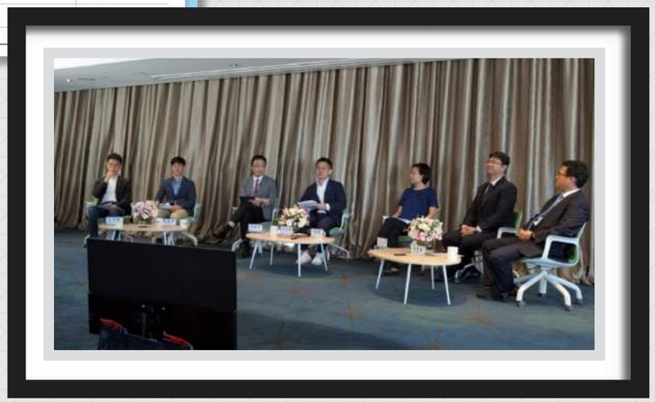
기존 한림원에서 수행하였던 원탁토론회와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 젊은 과학자가 바라보는 현 시점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고 세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하였다. 발제자 전원이 관련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다소 부담은 있었으나, 각자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작 단계이다 보니 간혹 실수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차세대리포트의 내용을 함께 아우르는 원탁토론회로 발전하는 동시에 젊은 과학자들의 의사 개진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제154회 한림원탁토론회 (2020년 5월 21일)

젊은 과학자가 보는 R&D 과제의 선정 및 평가 제도 개선



이대희 운영위원, 함유근 회원, 김진성 간사, 남기태 간사,
박문정 회원, 김수영 운영위원, 정우성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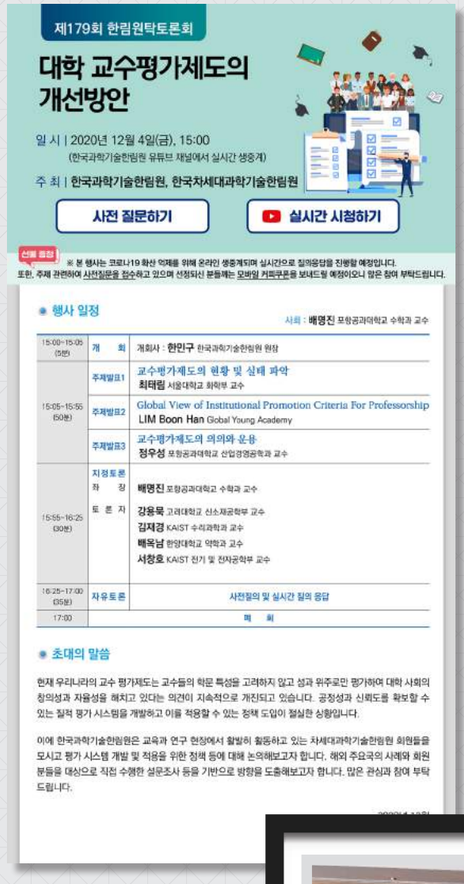
제164회 한림원탁토론회 (2020년 7월 30일)

젊은 과학자가 보는 10년 후 한국 대학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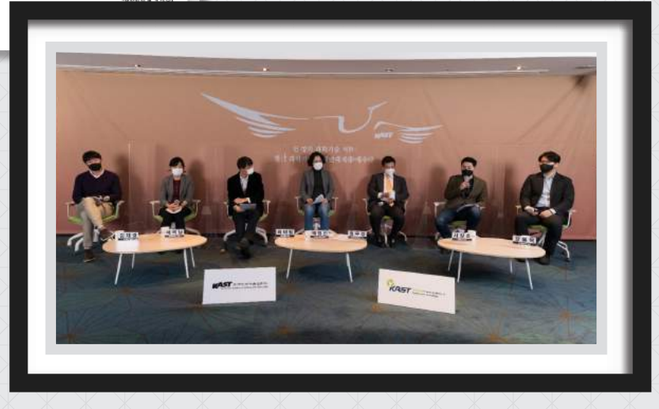
정우성 운영위원, 주영석 운영위원, 이성주 간사, 장호원 회원,
손기훈 간사, 김병수 회원, 나석인 회원

제179회 한림원탁토론회 (2020년 12월 4일)

대학 교수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김재경 회원, 배옥남 회원, 최태림 운영위원, 배명진 운영위원,
정우성 운영위원, 서창호 회원, 강용묵 회원



C. 차세대리포트 발행

Y-KAST 회원이 과학기술분야 연구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아 정책 제안서로 발간하였다. 또한, 정책입안자 대상으로 배포하여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강화와 정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학생, 신진 연구자 등 젊은 과학자에게 미래 신기술 분야와 관련 연구동향을 소개하여 진로 · 연구 분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더불어 일반 대중의 과학기술분야 이해 증진과 관심도 제고에 활용해 과학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지난 2년 간 총 일곱 편의 차세대리포트가 발행되었다. Y-KAST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주제(안) 검토와 참여자 추천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차세대회원 전원 대상의 주제 공모를 진행하였다. 관련 사항을 확정한 이후에는 주제별 인터뷰를 추진하여 리포트와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였다.

머신러닝

-인간처럼 보고 생각하고 예측하라

<참여자>

김미현(가천대), **이성주**(아주대), **현동훈**(서울대)

<발행월>

2019년 1월

수소사회

-과학기술이 만들어가는 미래

<참여자>

장호원(서울대), **이진우**(KAIST), **주상훈**(UNIST)

<발행월>

2019년 12월

양자기술

-과학은 끝없이 증명할 뿐이다

<참여자>

박홍규(고려대), **신용일**(서울대), **양범정**(서울대)

<발행월>

2020년 1월

뉴로모픽칩

-인간의 뇌를 닮은 작은 반도체

<참여자>

김수영(고려대), **이태우**(서울대), **조정호**(연세대)

<발행월>

2020년 9월

대학의 미래

-젊은 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참여자>

장호원(서울대), **손기훈**(POSTECH), **이성주**(아주대), **주영석**(KAIST), **김병수**(연세대), **정우성**(POSTECH), **나석인**(전북대)

<발행월>

2020년 11월

암과의 전쟁

-암 정복을 향한 꿈의 치료법

<참여자>

김상우(연세대), **김진성**(연세대), **주영석**(KAIST)

<발행월>

2020년 12월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여자>

박상민(서울대), **박인규**(KAIST), **이정은**(서울대)

<발행월>

2020년 12월

D. 국회의원과의 만남

2019년 7월 4일, 이상민 국회의원과의 조찬 포럼을 통해서, 5대 과학강국 진입과 젊은 과학자 육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교원 확충 2)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3) 생애주기 별 연구자 육성 4) 여성과학자의 모성보호와 공존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비 독립 연구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추후 2차 모임도 계획하였으나, 연속성 있게 네트워크할 수 있는 정례화 모임을 만들지 못한 바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 참 석 자
- 국　회 : **이상민** 의원
- 한림원 : **한민구** 원장, **정진호** 총괄부원장, **윤정한** 차세대부장
- Y-KAST : 간사, 운영위원, 회원 등 13인
- 프로그램(안)

08:00-08:05	사회자(**남기태** 교수(서울대학교) 및 참석자 소개
08:00-08:05	Y-KAST 소개(발표자 : **윤정한** 교수(한림대))
08:10-08:20	주제발표 1 : 전문연구요원제도(발제자 : **김진성** 교수(연세대))
08:20-08:30	주제발표 2 : 수월성(발제자: **윤태영** 교수(서울대))
08:30-08:40	사회자(**남기태** 교수(서울대학교) 및 참석자 소개
08:40-09:30	주제발표 3 : 고용안정성 등(발제 : **김미현** 교수(가천대))
	참석자간 자유 토론 및 차기 연구모임 논의

(좌측부터 시계방향: 김상현 회원, 이성주 간사, 주영석 운영위원, 김수영 운영위원, 김진영 회원, 김진성 간사, 김미현 운영위원, 남기태 간사, 이동수 회원, 나용수 회원, 윤태영 간사, 정진호 총괄부원장, 이상민 국회의원, 한민구 원장, 윤정한 차세대부장)

E. 청와대 과기보좌관과의 만남

2019년 9월 19일, 광화문 달개비에서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과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Y-KAST의 역할과 활동 상황에 대해 소개하는 동시에 젊은 과학자가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어려움, 정책적 · 제도적으로 지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F. 과학기술장관과의 간담회

2019년 12월 3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젊은 연구자, 네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회원 · 박사후연구원을 비롯한 젊은 연구자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곱 명의 차세대회원과 박사후연구원 우수연구자 열두 명이 참여해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의 젊은 과학자 지원계획'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박사후연구원의 독립적 연구 기회 보장과 그들이 연구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젊은 연구원의 다양한 성장 경로 중 하나인 실험실 창업, 기업으로의 취업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신진연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비 증액'과 비전임 신진 연구자가 독립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 사업' 은 그동안 차세대 리포트, 국회의원과의 만남,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과의 만남 등을 통해 차세대 한림원이 신진과학자 육성 정책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좌측부터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민구 원장)

(박홍규 회원)

G. 한국과학기자협회·Y-KAST 포럼

지난 2020년 5월 21일(목), 제1회 한국과학기자협회 Y-KAST 포럼이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차세대회원의 연구 활동 정보 교류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하고,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대언론 이해 제고와 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박홍규 이학부 차세대회원과 이현주 공학부 차세대회원 2인이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후 관련 토론과 함께 차세대회원 참석자 전원을 과학기자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Y-KAST가 과학전문 기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 자리에선 언론을 통해 Y-KAST 멤버를 소개하는 실질적 기회가 주어졌다. 이로써 과학계와 언론계의 이해도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한다.

한편, 의약학을 주제로 제2회 포럼을 2020년 8월 중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두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2021년에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현주 운영위원)

(정우성 운영위원)

3) Y-KAST 활동의 체계화

A. 운영위원회 정례화

1년 차에는 매달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반면, 2년 차엔 두 달에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대외활동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의 시급성이 줄어든 까닭이다. 다만,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지며 지방에서 근무하는 운영위원의 운영위원회 참석이 용이해지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B. Y-KAST 회원 선출 체계화

2019년도엔 회원심사제도를 제출서류와 선출절차, 두 가지 측면에서 변경해 시행하였다. 2018년도까지 수행한 회원심사가 연구 업적의 질적 가치보다는 양적 가치에 평가가 치중된다는 비판에 근거해 제출서류에 있어서, i) 표준점수제도를 폐지하고, ii) 추천서 서류를 간소화하며, iii) Y-KAST 지원 동기와 회원으로서의 활동 포부를 담은 계획서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선출 절차는 크게 3단계로, i) 자료검토위원회, ii) 학부별 차세대예비심사위원회, iii) 차세대회원심사위원회로 이루어진다. 2018년도에는 차세대회원만으로 구성한 자료검토위원회가 자료검토 심사를 했다면, 2019년도부터는 대학원생 등을 활용해 제출서류 확인을 선행하고, 이후 한림원 정회원 3인으로 구성한 자료검토위원회를 통해 1차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변경한 회원심사제도에 따라 2019년도에 이뤄진 '2020년도 Y-KAST 회원' 선출 공모에 총 82인(정책학부 4인, 이학부 17인, 공학부 41인, 농수산학부 2인, 의 학부 18인)이 지원하였고, 이 중, 총 26인을 선출하였다.

[Y-KAST 회원심사제도의 변화 및 개선내용]

해당 연도 / 선출 단계	2019년도 심사 (2020년도 회원 선출)	2020년도 심사 (2021년도 회원 선출)
추천 · 접수	- 추천 서류 간소화 - Y-KAST 회원 활동 포부와 계획서 추가	- 대표 논문에 제1저자 논문 포함 - 공학부 Computer Science 분야는 콘퍼런스 논문 포함 가능
서류 확인	- 전공자 등을 활용해서 논문 저자 명단과 수치 확인	좌동
심사 단계	- 표준점수 제도 폐지 - '자료검토위원회'의 전문 심사 기능 강화: 19개 분과별 정회원 3인이 참여하여 대표 논문 5편 등 연구업적 중심 정성적 종합평가 시행 후 후보자별 검토의견서 작성	- 심사위원에게 차세대회원 연구분야별/소속기관별 현황 정보 제공 - 후보자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 도입 - 차세대회원 중심의 '차세대예비심사위원회(학부별 심사)' 구성 및 진행 - '차세대회원심사위원회(종합 심사)'에 학부별 차세대 운영위원 참여,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수행

2019 Y-KAST Members' Day의 'Y-KAST 미래를 위한 도약(미래 로드맵 설정)' 세션에서 참가 회원이 Y-KAST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회원심사제도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다. 회원 선출 심사 시 학부별로 학부내 전공의 균형성에 대한 필요성과 전공의 업적을 산정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 획일성을 향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9년도 개편한 회원 선출 시스템의 시행과 적용 결과를 토대로, Y-KAST 운영위원회 2대는 차세대회원 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년 1월 기준 정회원과 차세대회원 중 원장이 위촉하는 10인으로 구성하는 단계별 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차세대한림원의 비전과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문회원을 회원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Y-KAST 동문회원 관리 및 회원선출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회원 선출 공고 게시 후 선출 규정 변경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에 2020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동문회원의 차세대회원심사 참여 가능 여부는 2021년 현재 차세대 동문회원 관련 TF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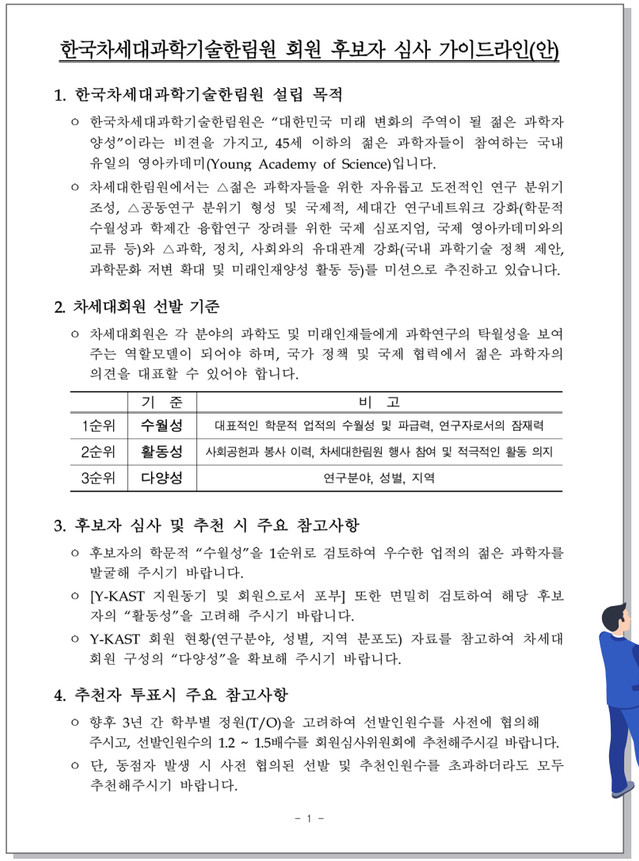
이에, 2020년에 수행한 '2021년도 Y-KAST 회원' 선출은 2019년도 회원 선출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 8월에 자료검토위원회(분과별 정회원 3인, 총 53인 참여)를 개최했고, 9월엔 차세대예비심사위원회(5개 학부별 개최, 총 46인 참여)를 학부별 차세대회원 10인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열었다. 더불어 10월엔 5개 학부 정회원과 차세대회원 10인 내외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차세대회원심사위원회를 추진하였다.

이번 선출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로, 우선 회원 심사 시 연구 분야와 소속기관별 다양성을 도모하였다. 각 심사위원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학부별 학술분류표에 기반한 각 연구 분야 차세대회원 분포와 학부별 소속기관 회원수 현황 등을 제공받아서 차세대회원이 특정 분야나 기관에 편중하지 않도록 심사와 토론의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2019년도 대비 차세대회원의 심사 참여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위한 재적위원(10인 내외)을 채우지 못하는 정책학부나 농수산학부를 제외하면, 전원 차세대회원으로 차세대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더 많은 참여를 도모할 수 있었다.

'2021년도 Y-KAST 회원' 선출 공모에는 전년 대비 36.6%가 늘어난 총 112인(정책학부 5인, 이학부 22인, 공학부 51인, 농수산학부 9인, 의약학부 25인)이 지원하였고, 이 중 총 34인을 선출하였다.

한편 논문 위주 심사에 따른 장단점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차세대한림원이 지향하는 가치에 준한 회원 선발을 위해 "차세대회원선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차세대회원 선발심사 현장에 배포하였다. 차세대회원 구성원의 연구 분야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연령 후보 위주의 선발로 인한 잔여 임기 문제와 30대 회원 부재 등을 지양하기 위해서다. 논의를 거쳐 후보자의 수월성 · 활동성 · 다양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길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였다.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 후보자 심사 가이드라인(안)

1.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설립 목적

○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은 "대한민국 미래 변화의 주역이 될 젊은 과학자 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5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영아카데미(Young Academy of Science)입니다.

○ 차세대한림원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자유롭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공동연구 분위기 형성 및 국제적, 세대간 연구네트워크 강화(학문적 수월성과 학제간 융합연구 장려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국제 영아카데미와의 교류 등)와 △과학, 정치, 사회와의 유대관계 강화(국내 과학기술 정책 제안, 과학문화 저변 확대 및 미래인재양성 활동 등)를 미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차세대회원 선발 기준

○ 차세대회원은 각 분야의 과학도 및 미래인재들에게 과학연구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역할모델이 되어야 하며, 국가 정책 및 국제 협력에서 젊은 과학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 준	비 고
1순위	수월성	대표적인 학문적 업적의 수월성 및 파급력, 연구자로서의 잠재력
2순위	활동성	사회공헌과 봉사 이력, 차세대한림원 행사 참여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3순위	다양성	연구분야, 성별, 지역

3.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시 주요 참고사항

○ 후보자의 학문적 "수월성"을 1순위로 검토하여 우수한 업적의 젊은 과학자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Y-KAST 지원동기 및 회원으로서 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후보자의 "활동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Y-KAST 회원 현황(연구분야, 성별, 지역 분포도) 자료를 참고하여 차세대회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추천자 투표시 주요 참고사항

○ 향후 3년 간 학부별 정원(T/O)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 선발인원수의 1.2 ~ 1.5배수를 회원심사위원회에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 단, 동점자 발생 시 사전 협의된 선발 및 추천인원수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

C. Y-KAST 동문회원 제도 마련

만 45세로 Y-KAST 임기 만료를 맞이하는 회원이 현역으로 활동하는 Y-KAST 회원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Y-KAST 동문회원 제도를 마련하였다. 동문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 45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Y-KAST 멤버십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임 미 신청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대 운영위원회에서 동문회원의 정의와 활동 권한을 정립한 만큼, 앞으로 소속감 부여와 활발한 차세대한림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가 필요하다.

06 활동을 돌아보며

Y-KAST 2기 운영위원회 활동이 이어진 지난 2년 동안, Y-KAST는 윤정한 부장님의 헌신적인 리더십 하에 많은 활동을 시도하고 정립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Y-KAST 회원에 대한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선정이 곧 젊은 과학자의 명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회원 참여는 아직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 Y-KAST 운영위원을 포함한 소수의 활동적인 멤버가 전반적인 활동을 이끄는 성격이 강하고, 차세대회원 가운데 3년 임기가 끝난 후 연임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Y-KAST의 멤버로서 더 많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비전 제시와 모든 회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차별화한 Y-KAST만의 색깔을 갖추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Y-KAST는 한림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지만, 비슷한 의견을 내는 데 머무른다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미약해진다. 젊은 과학자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 하에 패기 있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1

윤정한 차세대부장

Y-KAST와 함께했던 2년은 제게 새로운 경험과 활기를 부여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긍정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 마치 시간을 거스른 듯했지요. 이때 얻은 열정을 품고 앞으로 3년 이상은 더욱 젊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봅니다.

Y-KAST의 기틀을 세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젊은 과학자 양성이라는 미션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주 원대한 꿈이기에 어떻게 첫발을 내디뎌야 하나 고심을 거듭했는데 결국 도달한 해답은 다름 아닌 네트워크더군요. 분명, 우리 곁에 산재한 난제를 힘 모아 해결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며, 참신한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터였습니다. 따라서 젊은 과학자끼리 또는, 세계 유수 석학과 접하는 기회를 연이어 만들어나갔고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시니어 과학자와의 돈독한 관계 정립 역시 힘쓰고자 했습니다. 앞선 세대로서의 우려를 조심스레 밝히자면, 물론 젊은 과학자에겐 선배와의 만남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살아온 바를 떠올려 조언한다면, 선진이 물려준 지혜가 반드시 값진 유산으로 남으리라 자부합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서로 대면하는 기회를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2대를 뒤로 하고, 곧 3대에 들어설 텐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Y-KAST 운영위원회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의 축복이라 여길 만큼, 출중하니 명맥을 잘 유지해나갈 거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위상을 높여 나가자는 당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과학 인재가 존경심을 가지고 따르는 자랑스러운 조직이자 '젊은 한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울러, 여러분이 제 나이 즈음이면 책장에 우리의 성과와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학부

2

이성주 간사

새삼 Y-KAST와 같이 보낸 2년이 훌쩍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 연구와 과학기술 이슈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까닭이겠지요. 단지 이번 2대 활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로 자주 접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다행히 세 차례의 멤버스데이 개최를 거치며 나름의 갈증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Y-KAST의 존재 이유와 역할, 활동 등을 고민하며 뜻 깊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한, 세계영아카데미(Global Young Academy, 이하 'GYA')와의 협력을 위한 모임 참석을 통해 각국 젊은 과학자 집단의 체계를 세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더욱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3대에 나름의 조언을 보태자면 향후 Y-KAST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엔 운영위원회는 물론, 일반 회원 역시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는 구성원이 늘어난다면 더 큰 도약이 비단 꿈에 그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임 심사에 참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회원이 한림원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숨은 잠재력이 3대, 그리고 이후까지 지속해서 Y-KAST를 뒷받침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3

오채운 운영위원

저와 Y-KAST 운영위원회의 인연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윤정한 차세대부장님의 참여 제의로 비로소 그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매우 감사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서더군요. 한림원 편집위원회와 여타 활동 정도로 만족해온 제가 과연 이토록 큰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 까닭입니다.

따스한 애정과 응원에 힘입어 2년을 보내고 난 소감은, 용기 내길 잘했다는 겁니다. 기여보다는 많이 배우고 깨달았던 시간 동안 상당히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당한 학술적 성과를 이룬 운영위원 모두 바쁜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각종 정책토론회나 멤버스데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젊은 과학자가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소통 방식에 관심을 두고 토론하는 현장을 접하며 진정으로 Y-KAST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두 해를 보낸 입장으로, 곧 본격적인 활약에 나설 3대에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오늘날의 토대를 마련한 2대와의 끈을 놓지 않는 동시에, 일반 회원과 널리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운영위원회가 합의한 정보 공개를 제안해봅니다. 문서와 같은 단순한 형태라도 공유하여 조직 활성화를 유도할 때, Y-KAST의 내일은 더욱 빛나리라 믿습니다.

4

정우성 운영위원

사실 저는 첫해엔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내느라 Y-KAST 운영위원회에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이번 2대가 제겐 유난히 짧고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젊은 과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련 정책 입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의 활동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터입니다. 이 같은 맥락이 다음 3대로 이어져 성과를 꽃피웠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돌아보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대면이 어려울 때조차, 우리는 Y-KAST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했습니다. 기존 토론회의 틀에서 벗어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탐색하는 한편,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해 더욱 너른 영역의 의견을 귀담아듣고자 노력을 기울였죠. 또한, 과학기자협회와의 조찬 모임은 오히려 협회가 요청에 반색할 만큼,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나가 내부 학부 간은 물론, 관련 모임, 기관 등과의 접촉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기존 운영위원이 전통의 상징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동문 모임 개설을 제안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데 그치기보다 언제든 3대가 의지하는 버팀목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면 더욱 뜻 깊지 않을까요.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이학부

5

윤태영 운영위원

대한민국의 노령화가 서서히 진행하는 이 시대에 젊음이 주는 패기와 도전 정신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Y-KAST가 앞으로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학자의 모임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는 까닭입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일화는, 연구년으로 인해 2년 임기 중 후반 1년 동안 간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저 대신 이학부 간사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 최태림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Y-KAST가 빛나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보태 주신 모든 운영위원에게 찬사를 바칩니다.

다만, 계속해서 위상을 높여 나가자는 당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과학 인재가 존경심을 가지고 따르는 자랑스러운 조직이자 '젊은 한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울러, 여러분이 제 나이 즈음이면 책장에 우리의 성과와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배명진 운영위원

2019년 6월의 어느 날, 윤정한 부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한림원 운영위원으로 저를 추천한다는 내용이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과연 운영위원직을 수락해야 할지 고민이 앞섰습니다. 사실 차세대회원 선정 당시에도 앞으로 연구만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늦게나마 첫 아이를 낳고, 차세대 한림원 운영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하던 때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출산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하고 있다 보니 어딘가 어색하고, 운영위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식은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부끄럽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내면서 육아와 일을 효과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제 운영위원회 2대 활동을 마치며 문득 돌아보니, 그동안 과학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었다는 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학자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살피게 되었습니다. 함께 열심히 활동한 2대 운영위원회와의 인연과 그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에 거듭 감사를 전합니다.

7

최태림 운영위원

떠올려보면, 제 일상은 Y-KAST 운영위원회 참여를 기준으로 크게 나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전까진 맡은 강의와 연구에 오롯이 집중해왔다면, 운영위원으로 보낸 2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젊은 과학자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었던 까닭입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 자신이 과연 주어진 소임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운영위원회에 몸담은 후엔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여건 조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각종 정책토론회와 GYA 협력, 한림원탁토론회 등을 거치며 차츰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또한, 단순한 학회 활동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각 분야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한 경험을 토대로 팁을 하나 남기자면, Y-KAST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은 소위 '멍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과 일반 회원의 구분을 떠나 젊은 과학자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얻는 장(場)이 펼쳐져야 비로소 조직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 터입니다. 3대의 앞날에 열릴 발전과 도약의 한 마당을 고대하겠습니다.

공학부

8

남기태 간사

일찍이 제안했던 Y-KAST 운영위원회 실적보고서 기획에 따라 2년의 세월을 기록으로 정리해보니 참으로 기쁜 한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바탕 삼아 조만간 발전사를 펴낼 날이 오겠지요. 정말 시간은 쏜살같아서 1·2대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엊그제인 듯싶은데 어느덧 2021년입니다. 이제 3대가 시작하면 운영위원으로 돌아가서 모든 활동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일만 남았네요.

지난날을 더듬어 보면, 맨 처음 Y-KAST가 탄생할 당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1기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그 덕분인지 2대부터는 더욱 위상이 높아져 어딜 가든 반갑게 맞이해주는 기관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19년 겨울에 스웨덴 영아카데미의 초청으로 이뤄진 현지 방문은 평생을 두고 이야기할 추억입니다. 개장 전 노벨 뮤지엄(Nobel Museum)을 미리 관람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하면, 마침 노벨상 발표 시즌에 맞춰 온 덕분에 관련 장소를 둘러볼 수 있었죠. 즐거운 대화와 논의를 곁들인 저녁 식사 역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같은 맥락이 다음 기수로 온전히 이어져 해외 한림원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교류를 맺는 계기를 형성하길 바랍니다. 또한, 오래 활동할 수 있는 신진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연구 성과에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열의 있는 젊은 과학자를 과감히 발탁해보는 건 어떨지 제의해봅니다. 아울러 학부 간 경계가 단단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길을 열고,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협력할 때 Y-KAST의 철학이 더욱 공고해질 터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3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9

김수영 운영위원

Y-KAST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지난 두 해를 함께 걸어오는 동안, 지속해서 꾸준한 성장이 이뤘다고 자부하는 만큼 오늘 이 순간이 더없이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사실 1대 초창기엔 내부 기본 체계를 다지는 데 집중하느라 그 외의 일은 신경 쓸 여유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러다 2년 전 이맘때 즈음 윤정한 차세대 부장님의 합류가 이뤄졌고, 서서히 간사와 운영위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활발한 활동을 추진한 끝에 여기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대엔 더욱 세분화가 이뤄져 멤버스데이를 비롯한 각종 행사는 물론, 해외 기관 탐방과 교류, 차세대 리포트 발행, 유튜브 채널 개설 등을 진행할 수 있었죠.

따라서 3대는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 자못 궁금합니다. 기존에 한발 앞서 유튜브로 소통 창구를 열었으니 나름의 전통성과 혁신이 공존하는 형태로 유지해 나간다면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32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와의 협업을 일찍이 시도한 바와 같이 청소년 세대와 과학 간의 거리를 점차 좁히는 작업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차세대 과학 인재 발굴에 힘쓴다면 계속해서 Y-KAST를 지켜나가는 꿈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보다 더욱 크고 원대해질 다음 기수의 내일을 늘 응원합니다.

10

이현주 운영위원

Y-KAST의 탄생은 젊은 과학자가 모여 과학뿐 아니라 교육, 정책 등을 이해하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논문 쓰고 발표하는 학자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선후배 과학자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사회에 좀 더 반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년간 최선을 다해 주신 Y-KAST 사무국과 간사님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수산학부

11

손기훈 간사

이전까지는 연구 분야 관련 활동에 주로 몰두했다면, Y-KAST를 만나 과학 정책, 미래 비전, 대중과의 소통 등 다방면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림원탁토론회 발표를 준비하며 앞으로 과학계와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조금이나마 정책 입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면서 내심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Y-KAST가 대한민국 과학 전반에 시너지를 선사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윤정한 교수님과 사무국,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Y-KAST, 파이팅!

12

이정은 운영위원

지난 2년간 Y-KAST 운영위원회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뤄졌어요. 우선 1대에선 해외 한림원 영아카데미를 포함한 각종 기관과 교류하며 존재를 널리 알렸고요. 그 기반을 통해 제가 속한 2대는 국내 정책입안자와의 만남, 한국과학기자협회 포럼, 유튜브 채널 개설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꼽는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한림원과의 긍정적 관계 전환이 아닌가 해요. 초창기엔 단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물어왔다면, 이제는 협력이나 동참을 제의한다는 점에서 Y-KAST가 나름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고 매우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윤정한 차세대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의 노력과 열정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을 쭉 이어가는 의미로 동문 모임을 결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기수가 점차 쌓여서 역사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3대부터는 전체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회원간 소통 체계를 더욱 넓힐 수 있길 바라봅니다. 운영위원뿐 아니라 일반 회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해 만드는 1년은 비단 조직뿐 아니라 각자의 삶에 원동력을 부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13

이대희 운영위원

Y-KAST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소기의 성과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전보다 더욱 넓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2018년 회원 선출을 거쳐 차세대 리포트 작성에 참여하면서 젊은 과학자의 현실과 대우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바 있는데요. 그저 맡은 연구에만 몰두했더라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주제였어요. 물론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주위 연구원과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자 노력을 했을 테죠. 그러나 2대에서 이뤄진 정책입안자와의 만남이나 법안 탐구 등으로 연결하진 못했을 거예요.

한편, 운영위원회가 추진하는 활동이나 행사가 젊은 과학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각종 대학, 관련 기관 등과의 소통을 통해 고충이나 희망 사항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간 축적해온 바를 토대로 지속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3대의 몫이지만, 동문 모임을 조직해 자문할 수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농수산학부에 속하다 보니, 2대를 마무리하며 가장 염두에 두었던 이슈는 학부 내 새로운 회원을 물색하는 일이었는데 역시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선정한 만큼, 앞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의약학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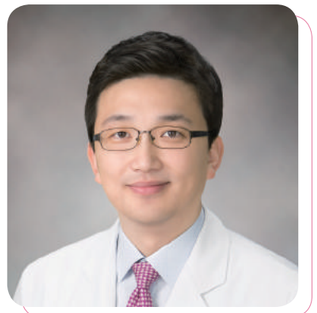
김진성 간사

Y-KAST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일에 참여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역시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로나19 확산 전에 구상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Y-KAST의 발자취를 남기고자 신문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택했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우선 젊은 과학자의 시선을 모을 수 있었어요. 또한, 과학쿠키와의 협업은 차세대 과학 인재로 성장할 청소년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우리가 진행한 각종 행사를 손쉽게 찾아보고, 외부에 홍보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요.

현재 영상은 일 년에 4편 정도 정리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슈에 따라 조회 수 차이는 있으나 점차 축적해 나가다 보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려 속마음을 밝히자면, 실은 제게 세 가지 야심찬 목표가 있었어요. 일 순위는 적극적인 참여였고요. 다음은 청와대 초청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가 대통령과 사진을 남기고 싶었어요. 아울러 국회의원, 기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돌아보니 두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네요.

앞으로 배턴 터치를 할 3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위상을 드높여 주길 기원합니다. 또한, 현재 잘 가꿔놓은 유튜브 채널을 유지해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와 젊은 과학자가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기획해보면 상당히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해마다 발전을 거듭할 Y-KAST의 미래를 저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15

김미현 운영위원

저와 Y-KAST의 인연은 2년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한국연구재단에서 Y-KROS라는 심포지엄 참가를 제안했을 때, 어렴풋이 한림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 융합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인드와 통하는 점이 있어서 3차 모임까지 참석한 후, 결국 Y-KAST 회원으로 지원해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모두 동감하는 바겠지만, 한국의 과학자는 개인 리서치와 연구실을 두 어깨에 메고 살아갑니다. 반면 GYA 참석을 통해 만나본 세계 곳곳의 연구자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미래 또한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 점이 매우 감명 깊었던 한편, 해마다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는 데 분주해 사회적 가치에 미처 시선을 둘 겨를이 없었던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이제 3대에 들어선 운영위원회와 회원 일동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더 너른 시야로 과학을 바라보고 지평을 넓힐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덧붙여, 소규모 그룹 결성, 단기 프로젝트 등으로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질 기회를 만들어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터입니다. 우리라는 연대감이 발생할 때, 비로소 함께하는 의미가 더욱 빛나고 한림원 시니어 과학자와의 원활한 연계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향해 나아갈 Y-KAST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16

주영석 운영위원

유욱준 한림원 부원장님과의 인연으로 Y-KAST에 첫발을 내디딘 후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돌아보면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윤정한 차세대 부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Y-KAST의 비전과 역할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과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의 설립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전히 명확한 본질이 무엇인지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연구실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면, 핵심 목표가 분명하니 필요한 인원과 비용을 결정해서 운영이 이루어질 텐데, Y-KAST가 하는 일은 훨씬 넓은 영역에 걸쳐있고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진성 간사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Y-KAST와 과학쿠키의 유튜브 협업은 특히 기억에 남는 이슈로 손꼽을 수 있겠고요. 164회 한림원탁토론회 역시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성주 교수님과 사회자로 참여한 제2회 Y-KAST 멤버스데이, 2021년도 차세대회원 회원패 수여식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이어져서 Y-KAST만의 시그니처 이벤트를 기획하는 동시에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연이어 시도해 나간다면 더욱 훌륭한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젊은 과학자의 권익 보호와 주위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나서야겠죠. 3대가 선보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